

이웃주민과 함께 행복한 마을 교육공동체 '호응'

주민들이 광주공고 교육과정 · 최신 기자재 활용 실험 · 실습 체험



광주공업고등학교(교장 김희진)가 지난 5일 이웃주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학교의 우수한 교사들의 인적자원과 최신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활용해 행복한 마을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한 아이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미을 전체가 나선다는 아프리카의 원주민과 같이 우리나라도 마을 교육공동체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돼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 단순하게 교과시간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과 중에서 등하고 시간까지 다양한 환경의 경험 속에서 학습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제 성장기의 청소년 학생들이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다소 거칠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주변의 미를 주민들이 함께하는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고운 말과 행동으로 지도하게 되면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더욱 더 효과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매직학교의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교육공동체 프로그

램'은 2년째 계획해 운영한 이동승 연구부장교사는 인근 평촌동, 오치동, 일곡동 주변 환경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주민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72년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2만 5천 평의 넓은 학교 공간에 메타세콰이어 고목과 다양한 나무숲이 조화롭게 아워진 자연환경이 우수한 학교의 녹지 공간을 확보한 공간을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 건강증진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개방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우리 생활과 직접 연계된 일반 생활 용품을 친환경 재료와 우수한 실험실습 시설, 지도 교사 등의 좋은 교육환경 여건을 갖고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아 매년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해 주민들의 민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해 큰 호응을 받았다.

조인호 기자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 나기"

무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프로그램 운영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은 7일(금)부터 17일(금)까지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 42명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나기', 무안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

방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겨울 방학은 또래 및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활동들을 계획하였다.

여 전문 강사를 초청, 1일 1 집중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직업·진로교육 충실에 목적을 두었다. 학생들은 원예활동, 제빵 제과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잠재

능력 및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인 언어치료와 개별화 교육, 미술치료 등으로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무안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인화학부모(환경초등학교)는 "추위로 움츠리기 쉬운 겨울방학기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알찬 프로그램 때문에 자녀와 함께 신나고 보람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철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집중 프로그램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업·진로에 대한 다양한 방학프로그램을 계획·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순천대 여직원 재능기부동호회,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성신원 방문해 후원 물품 기부 · 자원봉사 진행



순천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성지남)

가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대학교 여직원 재능기부동

호회는 최근 지역 아동보호시설인

성신원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진행했다.

순천 성신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 해체로 인해 부모와 함께 생

활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양육하는 보호기관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52명이 5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순천대학교는 성신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재능기부와 후원금 기부 등 물질적, 정서적 후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부 행사에는 성지 남 총장 직무대리와 최운홍 사무국장, 임기준 재무과장이 후원금으로 함께했으며 재능기부동호회를 비롯해 총무과와 미래융합대학 행정실, 여러 개인 기부자들이 생필품 등 후원 물품을 지원했다.

제순우 여직원 재능기부동호회장은 "앞으로도 성신원 아이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이웃 사랑 실천으로 공동체 정신을 더욱 키워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웃음꽃 피다"

여수교육지원청, 3일간 관내 교원 20명 대상 직무연수 실시

여수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은 지난 29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관내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2019 회복적 생활교육 직무연수'를 담당직실에서 실시했다.

18시간 직무연수 과정으로 운영된 이번 연수는 전남혁신학교 여수교육지구 사업 중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혁신학교 운영에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연식 교육장은 "새해 첫날 연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학교구 성원간의 관계성 회복이 혁신학교 운영에 매우 중요하기에 이번 연수생들의 첫 발걸음에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본 연수를 기점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성과 회복적 생활교육의 기본 철학들이 학교에 전파되기를 기대했다.

연수강사로 초빙된 박숙영(사단법인 좋은교시운동 신하 회복적 생활교육 센터장)은 "자발 중심의 생활지도는 공동체 형성을 괴롭히기 위해 같은 대학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관계성 회복이 학교교육에서 매우 필요하다"면서 회복적 생활 교육의 이해, 갈등에 대한 이해, 서클활동, 공동체 회복시스템 구축 등 의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연수생의 참여를 통한 서클실습은 갈등 대처 방식, 평화적 갈등 전환, 공동체 회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수=송기홍 기자

조인호 기자

◆ 광주지국안내

계립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외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회순 이서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 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